

'전주 야행' 첫날, 큰 호응 속 마무리

4만4483명 관광객 다녀가

경기전·오목대 거점으로
길 곳곳마다 장관 연출
전주기집놀이 등 공연 펼쳐

'별빛기행', 해설사 설명으로
문화제에 대한 관광객 이해 도와

6월 24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달 1회씩 4회 걸쳐 진행



지난 27일 첫 선을 보인 2017 전주문화제야행이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지난 27일 첫 선을 보인 2017 전주문화제야행이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 마무리 됐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제야행추진단에 따르면 '또 다른 시간의 문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모두의 수작'이 진행된 경기전 메인무대 2만4,146명을 비롯해 한지소원등 체험행사가 펼쳐진 전주 공예품전시관 앞 1만6,631명, 은행로 은행나무정 1,668명, 오목대 1,156명, 전주소리문화관 882명 등 총 4만4,483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전과 오목대를 거점으로 전주 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진 전주문화제야행은 태조로와 은행로·전주소리문화관·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 및 문화시설, 길 곳곳마다 빛이 스며들어 장관을 연출했다. 야간에 경기전이 열리고, 태조로 일대가 대형 미러볼·전통적 한지등과 청사 초롱으로 환하게 밝혀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무대인 경기전 광장에서는 개막공연 '세상의 모든 아리랑을 한 자리에 담아내다'와 '다음국악관현악단', '아리랑친구들', '전주기집놀이', '전주관소리합창단'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올해 처음 선보인 '별빛기행'은 해설사의 설명으로 문화제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태조로를 출발해 오목대·경기전에 대한 역사와 문화제에 대한 해설을 들은 후, 어진박물관 앞에 설치된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하고 천문학강의를 듣는 등 인문관광 투어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용비어천가의 주무대인 오목대의 서정적 공간에서 '달빛'이란 테마로 펼쳐진 서예와 무용퍼포먼스, 판소리와 해금, 대금, 거문고의 선율은 관광객들에게 전주다운 도시의 정체성, 전통의 멋, 풍류를 전해 주었다. 경기전 프락에서 열린 '달빛차회'는 전통과 자연의 깊고 오랜 이야기를 통해 관광객들을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안내했다.

한편 전주문화제야행은 오는 6월24일과 7월22일, 8월20일, 9월16일 매달 1회씩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투어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달빛기행'은 오는 6월3일 토요일부터 6월10일, 6월17일, 7월1일, 7월8일, 7월15일, 7월20일, 8월5일, 8월12일, 8월19일, 9월2일, 9월9일, 9월23일, 9월30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펼쳐진다. 주요코스는 태조로 습터에서 출발해 오목대와 경기전, 전통성당, 풍남문, 남부시장 야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참가비는 1만원. 예약신청은 288-9937, 282-3072. /정해은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국비 공연 유치 선정

군산예술의전당이 수준 높은 군산 문화·예술 공연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쾌거를 이뤘다.

군산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 우수단체공연 공모사업에서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와 발레 '호두까기인형'이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웰메이드 창작뮤지컬이라 불리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아 대학로에서 오픈런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며 발레 호두까기인형은 클래식 발레로 겨울이 되면 꼭 봐야할 공연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문순=김판곤 기자

▶▶ 공연 전시 ◀◀



작은 음악회, '낮달' 11월까지 소리문화전당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작은 음악회, 낮달'을 진행한다.

'낮달'은 소리전당의 주간 공간 활성화를 위한 브런치 콘서트로 오전 11시 중정·모악당 로비에서 클래식 공연을 비롯한 인디밴드·뮤지컬·탱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31일 연지홀 옆 야외 중정 무대에는 지역 오케스트라 '드림필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Dream Ensemble'이 오르며, 첼리스트 전진일이 연주와 함께 공연 진행자로 나선다. 공연 프로그램도 관객들에게 익숙한 오케라·영화·뮤지컬 OST 곡들로 채워진다.

특히 5월 낮달에는 스페셜 스테이지로 저녁 공연이 추가된다. 오후 7시 30분 명인홀 무대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던포크듀오 '이상한 계절'이 출연해 5월의 마지막 밤을 짚는 감성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민원에 진행되며, 브런치로 커피와 머핀을 제공한다. /정해은 기자

우리 전통예술, 오늘날의 공연예술로 살려내기까지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콘서트 '다담', 31일 전통예술연출가 진옥섭 감독 초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31일 오전 11시 예음헌에서 열리는 국악콘서트 '다담'에 전통예술연출가 진옥섭(한국문화의집 KOUS 예술감독·사진)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연극으로 문화예술계에 입문한 진 감독은 탈춤을 통해 전통예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서울놀이마당 상임연출, 대전엑스포 놀이마당 총연출, KBS 굿모닝 코리아 PD 등으로 활약했다. 1996년에는 '축제의 땅' 제작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전통예술을 연출하기 시작했다. 이어 '춤의 고을 고성사람들', '남무, 춤추는 차옹아비들', '여무, 허공에 그린 세월' 등으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2006년 '풍물명무전'으로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는 한국문화의집 KOUS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되어 '팔무전' '유랑광대전' 등 참신한 기획으로 전통예술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우리의 전통예술과 그것을 이어 온 명인들에 대한 진옥섭 감독의 각별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전통예술을 오늘날의 공연예술로 살려내는 그의 작업들을 되돌아본다. 진 감독의 이야기와 함께 무대를 장식할 음악연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



는 젊은 연주자 '4인 놀이'가 맡았다.

4인 놀이는 윤서경(아쟁,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부수석), 이영섭(대금, 영남대학교 음악과 교수), 신현석(해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 강사), 이재하(거문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4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단체.

이들은 '남원국거리', '사랑가', 그리고 이날 공연을 위해 특별히 구성한 즉흥음악 '20170531 4인놀이' 등을 연주할 예정이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과 전화 063)620-2328)로 예약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단야국제아트페어,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전시장서 개막

내달 2일까지... 한국구상대전 수상작과 함께 동시에 펼쳐져

한국미술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현대미술의 우수작가인 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2017 제12회 단야국제아트페어(DAF)가 지난 27일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전시장에서 개막했다.

다프는 '모든 미술은 이곳을 통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과거의 답습 형식

에서 벗어난 미술행사를 개최하는 품격 있는 국제문화 예술교류의 장으로 단야의 사랑과 희생정신이 깃든 벽골제에서 한국미술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국제아트페어로 한국미술의 활성화와 아시아 미술문화 교류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최되는 미술축전이다. 전시중심

으로 한국초대작가 작품과 함께 현대미술의 변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다프에서 주최하는 복합계층의 국제아트페어로 국내, 국외초대작가의 격조 높은 작품들과 함께 다음달 2일까지 김제 벽골제아리랑문학관 2층에서 다프전이 진행된다. 전시에는 본 전시와 신진작가 발굴 육성

하기 위해 공모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한국구상대전 수상작과 함께 동시에 펼쳐지며, 메인 본 전시 부수선정초대작가는 운영위원 추천을 우선으로 작가성, 참신성, 가능성, 지역성을 고려해서 최종 작가 심의 후 선정되어 전국 각 도 초대작가 작품과 한국초대작가작품 회화, 입체 400여점 작품을 전시한다. 수준 높은 각 지역 초대작가들의 특별한 기획전으로 다프의 꿈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바쁘고 지친 일상은 잠시 뒤로하고
별빛이 수놓인 밤하늘을 스크린 삼아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7.6.2.-6.6.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Festival Friend 류현경

